

경봉문도회 영축선문화재단 설립 추진

# “제2의 경봉 출현 발원”

경봉문도회(회장 원산, 이하 문도회)는 6월 28일 열린 제7회 정기총회에서 “영축선문화재단”을 설립해 스님의 뜻을 기리면서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제2의 경봉 스님의 출현을 발원하며 인재발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도회는 “2012년 경봉 스님 탄생 120주년, 열반 30주기를 맞아 영축선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며 “법문집과 육성법문CD, 미공개 사진 기록을 취합한 화보집 등을 발간해 스님의 생애를 엿볼 수 있도록 하고, 출제자가 모두에게 간소한 이론과 실적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양산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선원장 명정)은 6월 28일 통도사 무량수각에서 경봉

스님 일직 29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영축총림 대덕스님들과 경봉문도회 스님 및 불자들이 동참해 경봉 스님의 육성법문을 듣는 등 스님의 향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법회에 이어 2011학년도 재단법인 경봉장학회(회장 원명)의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6명, 동국대 학사과정 9명, 중앙승가대 학사과정 13명, 통도사 강원 8명, 선원 및 율원 4개소에 3000여 만원을 전달됐다.

경봉장학회는 승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89년 법인을 설립한 이래 올해로 21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는 등 교육발사에 매진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심려끼쳐 죄송”



원산 스님  
경봉문도회장·통도사 제28대 주지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추모법회 인사말에 앞서 최근 주지 취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1974년 선방 수좌로 통도사를 떠나며 공부에 매진하던 당시, 통도사 주무소로부터 재무 소임을 맡게 돼 경봉 스님께 조언을 구했다. 스님께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진흙이 손과 발에 묻을 수밖에 없듯, 주어진 소임에 성실히 임하되 너무 오래 맡지는 말라고 조언하셨다. 지금까지도 귀중한 경책이 되고 있다.”

원산 스님은 최근 통도사 주지 취임과 관련해 “심려 끼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전화위복이 되어 향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인재발사는 세계화의 첫 걸음”

정관 스님, 동국대에 장학금 3억원 쾌척

조계종 총회의원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과 부산지역 재가 불자들이 인재발사에 뜻을 모으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장학금 3억원을 쾌척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중)는 6월 24일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관 스님 이하 부산지역 재가불자들이 ‘불교 세계화 장학기금’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

정관 스님은 최근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발원했던 당시, 통도사 주무소로부터 재무 소임을 맡게 돼 경봉 스님께 조언을 구했다. 스님께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진흙이 손과 발에 묻을 수밖에 없듯, 주어진 소임에 성실히 임하되 너무 오래 맡지는 말라고 조언하셨다. 지금까지도 귀중한 경책이 되고 있다.”

원산 스님은 최근 통도사 주지 취임과 관련해 “심려 끼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전화위복이 되어 향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원로인 정



관 스님은 평소에도 인재 발사를 강조해 왔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며 “스님이 전한 큰 뜻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훌륭한 불자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중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소중한 뜻을 전해 주신 정관 스님을 비롯한 부산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외국의 학인 스님들과 젊은 불자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세계 각국의 불교문화와 관련 기관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 장래 촉망되던 공학도의 외도

부산 선양시니어빌리지 원장 허재원



불교계 사회복지의 두각은 부산에서 두드러진다. 부산 내 사회복지법인 최대규모를 운영하는 것도 불교계다. 활동면에서 이웃종교와 비교해도 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계 법인 사회복지기관장에는 38살 최연소 기관장이 탄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선양시니어빌리지 허재원 원장.

6월 24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문을 연 선양시니어빌리지 허재원 원장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공학도였다. 경희대 공과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가 불교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왔다. 더욱이 사업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복지관의 차량을 운전하며 독거어르신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마쳤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법인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대표, 방문요양센터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다. 그는 두 시설을 한데 모아 사회복지법인 선양이 탄생하는 힘을 보탰다. 하지만 아직 불교계의 나아갈 길에 열려가 않았다.

“불교계 부산 청소년 복지시설은 이웃종교 사회복지에 비해 탄탄한 편입니다. 그러나 외형에만 치중해, 오히려 작은 규모의 친숙하고 실속 있는 공간은 이웃종교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불교도만의 남다른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허 원장은 불교계의 고질적 병폐인 청년인재 부족과 결속력 약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직원들에게 끊임 없는 재교육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선진 사회복지 시설로부터 최신 기술과 문화를 배

부자 어머니 덕 본 엄친아지만

부처님 일 값지다는 생각에...

어머니인 김수현 이사장의 힘이 컸다. 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장이자 도서출판 백광 대표,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부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사무총장 등 부산 교계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를 어머니로 둔 그에게 어머니는 인생의 롤 모델이기도 하다.

“원래 제 꿈은 청렴한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글씨는 잘 못썼지만 그림만큼은 곧잘 그렸던 기억을 더듬어, 불교미술을 배워 불화 및 개금불사 등 불단을 조성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열기왕성한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절집의 일은 단조로

우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한 지역 특색을 고려해 지역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네사랑방과 연계해 편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하고, 식사하고 놀다갈 수 있는 마을회관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내부적으로도 법인 사무국과 선양시니어빌리지 직원들이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법당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부자 어머니의 덕을 보며 살아 가는 소위 엄친아라고도 하지만, 내 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사회복지법인 선양을 대표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051) 711-0102, www.sycare.or.kr

박지원 기자

## 홍법사, 백중49일 릴레이법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동련 이사장)는 백중을 맞아 수행진전을 다지는 릴레이 초정법회를 봉행한다.

홍법사는 7월 6일-8월 14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대웅보전에서 ‘백중 49일기도’를 봉행한다.

7월 6일 단양 방곡사 회주 묘려 스님 법문을 시작으로 13일 중앙승가대 교수산 스님, 20일 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 27일 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 8월 3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10일 통도사 사명암 감원 동원 스님이 차례로 법석에 오른다. 8월 14일 백중회향 법회에는 주지 심산 스님이 법문을 할 예정이다.

심산 스님은 “제왕 대덕스님들의 설법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수행하는 삶을 발원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508-0345, www.busanbuddhism.or.kr

박지원 기자



UN전물공사 추모헌회제 ‘불교식’ 봉행

한국전쟁 61주년을 맞아 UN군 전물공사를 추모하는 불교식 헌회제가 개최됐다. 부산 일사귀회(회장 문상임)는 6월 24일 부산UN기념공원 상징구역에서 제61주년 UN전물공사 추모헌회제를 봉행했다. 정각 스님(일봉선교종정,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은 “먼 이국 타향에서 고이 잠든 호국영령에게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법전사(주지 해륜)는 철곡군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 광장에서 제30회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군경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제를 봉행했다.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회의장 관보 스님은 대회사에서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대비할 불교인의 사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중정 해륜 스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영령들과 일체 고혼, 애혼들을 위로하고 천도하여 겨레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박지원 · 손문철 대구지사장

#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부처님을 찾아서

스님들과 함께 떠나는 불교 성지 순례단

### 1차 성도, 티벳(라사), 아미산, 낙산 대불 6일 (확정)

출 발 : 2011년 8월 17일(수요일) 인천 출발  
동 참 금 : 2,050,000 원 (일체경비포함)  
접수마감 : 7월 24일 (일요일)

### 2차 중국, 위해, 석도, 연대 (장보고 유적지) (예정)

출 발 : 2011년 10월 4일(일요일) 부산출발.  
국적기 이용  
동 참 금 : 890,000 원 (일체경비포함)  
접수마감 : 9월 4일

### 3차 출발 10월 23일. 출발예정

※15명이상 단체는 언제라도 출발가능 하오니 문의 바랍니다.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여행사 JCC  
전화 02)778-5412 / 팩스 02)771-7165  
김재한 010-5514-7852